

## 우리나라 醫科大學 醫學科敎員 現況分析과 醫學敎育 改善에 關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醫科大學 豫防醫學敎室

崔 三 燮

= Abstract =

###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Teaching Manpower and Curriculum of Medical Colleges in Korea

Sam Sop Choi, M.D.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The current status of teaching manpower and curriculum of a total of 19 medical colleges in Korea was analyzed with the data obtained through a survey on the curriculum of the year of 1979—1980. And the strategies for faculty development and curriculum development was also discussed specially on revisionment of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college establishment, and on effectiveness of attending professor system in medical education.

#### 緒 論

우리나라 國民醫療需要는 社會經濟의 지속적 발전과 國民醫療保障이라는 國家的 目標을 지향한 醫療保險과 醫療保護의 점진적 擴大에 따라 급격히 增大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增大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sup>1)</sup>. 政府는 이러한 國民醫療의 上昇需要에 대처하기 위하여 保健醫療人力의 中軸가 될 醫師人力을 敎育輩出하기 위해 많은 醫科大學을 新設하고 人學定員을 增員하여 왔으며, 이러한 政策은 앞으로도 繼續 推進될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sup>2)</sup>. 한 나라의 醫師人力의 需要는 그 나라 國民의 經濟成長, 敎育水準, 疾病樣相, 醫療制度 등 複合的 要素들의 相互作用에 따라 크게 影響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分野의 人力需要計劃 보다도 醫師人力 需給計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특히 醫師를 養成하는 醫學敎育은 다른 分野에 비하

여 그 敎育年限이 길고 일단 養成된 醫師는 轉業이 어렵다는 특수성 때문에 過剩輩出時에 야기되는 國民保健에 미치는 影響은 藥師나 看護員의 過剩輩出과는 그 性質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急激한 醫師의 量産은 그 質과 水準의 低下는 물론 過多한 相互競争을 조성하고 나아가 醫療倫理面에까지도 惡影響을 가져오게 할 素地를 내포하며 助成된 醫療需要 뿐만 아니라 健全한 國民醫療 發展에 저해적 結果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醫科大學 敎育이 堂면하고 있는 어려운 國民醫療나 醫療傳達體系의 未定立, 醫學敎育 目標과 敎育過程의 未備 등 制度的인 문제점에도 있지만 敎育施設의 未恰, 敎育機材의 不足 등 經濟的인 要因과 醫科大學에서의 敎育을 담당하고 遂行하여야 할 敎授要員의 量的 質的 問題에도 緣由되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醫科大學 敎育이 堂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問題는 基礎醫學 敎授要員의 大不足問題

\*이 연구는 1979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醫學教育이 臨床에만 置重하여 基礎醫學 教授要員의 養成을 소홀히 한 結果를 가져와 많은 醫科大學에 있어서는 適正水準의 基礎醫學 教育 遂行에 차질을 가져올 憂慮를 자아내고 있다.

본 調査研究은 우리나라 19個 全體 醫科大學(1個分校包含)을 對象으로 하여 1979學年度 敎課過程<sup>5)</sup> 및 醫學教育과 관련되는 諸般現況事項을 醫學科 專任教員을 中心으로 分析하고 大學設置 基準令<sup>6)</sup>(大統領令 제4543호)에 의거한 醫科大學 醫學科 專任教員 및 助敎의 最低限 定員數를 推定하여 現在 醫學科 敎員의 不足實態를 分析함으로써 우리나라 醫學教育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을 도출하여 앞으로 醫科大學 當局의 醫學教育 改善을 위한 努力을 促求하고 政府關聯部署의 政策資料를 提供하고자 試圖되었다.

## 醫科大學 醫學科敎員 및 教育關聯現況 分析

### 1. 醫科大學數와 入學定員數

1980年 現在 우리나라에는 19個 醫科大學이 있으며 醫豫科 入學定員 學生數는 2,090名이다. 19個 醫科大學중 國立大學인 6個大學의 入學定員 學生數는 820名이었고 私立大學인 13個大學의 入學定員數는 1,270名이었다. 大學別 入學學生 定員數는 大學에 따라 60名~160名이었으며 대체로 國立大學은 120名 以上인 反面에 私立大學은 1個醫科大學을 제외하고는 120名 以下이었다(表 1).

이와 같은 大學數와 入學學生 定員數를 政府樹立(1948年) 당시의 現況과 比較하여 보면<sup>7)</sup> 大學의 數에 있어서는 3.2倍(당시 6個校) 入學定員數에 있어서는

表 1. 醫科大學數와 入學學生定員數(1980學年度)

區分	國立大學		私立大學		合 計	
	大學數	學生數	大學數	學生數	大學數	學生數
入學定員數						
60	—	—	1	60	1	60
80	—	—	3	240	3	240
90	—	—	1	90	1	90
100	—	—	5	500	5	500
120	2	240	2	240	4	480
140	3	420	1	140	4	560
160	1	160	—	—	1	160
合 計	6	820	13	1,270	19	2,090
大學平均 學生數	—	140	—	100	—	110

5.0倍(당시 415名)로 增加되었고, 國立과 私立의 對比에 있어서는 당시의 3:3에서 6:13으로 私立醫科大學이 國立醫科大學의 2倍가 되었으며 學生數에 있어서는 私立醫科大學이 國立醫科大學보다 더 많은 入學定員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國民醫療面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늘날 醫療은 그가 지니는 本然의 公益性 때문에 社會化되어지는 것이 世界的 趨勢이고 醫學教育이 지니는 社會的 經濟的 特殊性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있어거나 醫學教育에 대한 施設 및 教育費에 대한 公的 負擔 比率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0年代부터 國立大學의 新設을 中止하고 私立醫科大學의 新設만을 認可하는 한편 入學學生 定員數에 있어서는 國立大學 쪽에 보다 큰 比率의 增員을 하므로써 輩出되는 醫科大學 學生數에 있어서는 國立 私立間의 平衡을 維持하려는 政策이 繼續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50年代를 起點으로 大型化되고 있는 國家豫算規模나 經濟 및 社會發展을 위한 投資規模의 增大로 미루어 볼 때 醫科大學 教育費의 政府負擔率 增大는 점차 더 어려워질 形便이 展望되나 2世國民의 教育이라는 大名提에서 教育大學이나 師範大學 教育費에 대한 公的 負擔率을 增大하여 나왔듯이 醫療가 지니는 本質的인 公益性을 감안하여 醫科大學 教育改革과 併行하여 政府의 財政的 支援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며, 最少限 以上의 醫科大學 新設計劃은 私立大學을 止揚하고 國立大學 내지는 公立大學에 置重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醫科大學 入學定員 增配에 있어서는 現行 醫科大學의 設置基準令을 整備補完시킨 다음에 各醫科大學의 實際 收容能力을 判斷하여 措置해야만이 醫科大學의 教育을 發展시키고 나아가 國民保健向上을 期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2. 醫科大學 醫學科 專任 敎員

(1) 醫學科 分野別 專任敎員: 19個 醫科大學 醫學科의 專任敎員數는 1,448名이었으며 그중 122名(8.4%)은 非醫學科 出身이었다(表 2). 全體 敎員중 基礎醫學敎員은 337名(26.0%)이었고 臨床醫學敎員은 1,071名(74.0%)이었다. 한편 基礎 및 臨床醫學 敎員의 對比를 大學別로 보면 國立大學에 있어서는 32:68인에 반하여 私立大學에 있어서는 24:76으로 國立大學에 비하여 構成比率이 현저히 달랐으며, 한편 臨床分野 敎員은 全體 1,071名의 74.3%에 該當되는 796名이 私立大學에 勤務하고 있었다(表 3). 이러한 現象은 國立大學이 私立大學보다 基礎와 臨床分野 敎員構成의 均衡이 잡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며, 私立大學에 있어서

表 2. 醫科大學 醫學科 專任敎員 및 非專任敎員과 助教 및 專攻醫·現況

醫科大學	區分	入學 定員 學生數	專任敎員數					助教數 (基礎)	專攻醫數 (臨床)	時間講師數			外來敎授數		
			基礎 分野	臨床 分野	計	敎授 및 副敎授	助教 및 專任講師			基礎 分野	臨床 分野	計	基礎 分野	臨床 分野	計
國立大學	A	160	40	85	125	83	42	16	287	4	4	8	32	142	174
	B	140	25	48	73	38	35	4	104	8	15	23	—	32	32
	C	140	16	38	54 (8)	34	20	8 (6)	105	—	—	—	8	23	31
	D	140	19	48	67 (1)	40	27	8	114	8	25	33	5	27	32
	E	120	13	27	40 (5)	13	27	8 (1)	51	6	5	11	—	5	5
	F	120	15	29	44 (6)	18	26	3 (1)	80	4	—	4	—	—	—
	小計	820	128 (19)	275 (1)	403 (20)	226 (5)	177 (15)	47 (8)	741	30	49	79	45	229	274
私立大學 (I)	G	140	18	34	52 (13)	28	34	3 (3)	75	6	4	10	4	—	4
	H	120	66	124	190 (29)	89	101	43 (13)	226	1	—	1	55	294	349
	I	120	17	74	91 (7)	56	35	4	132	2	—	2	12	184	196
	J	100	24	51	75 (2)	50	25	13 (8)	112	6	10	16	35	131	166
	K	100	57	185	242 (30)	81	161	20 (8)	234	12	—	12	—	—	—
	L	90	14	44	58 (3)	31	27	4	67	8	1	9	13	101	114
	M	80	21	58	79 (1)	51	38	1	133	—	—	—	8	—	8
N	60	18	41	59 (3)	28	31	2	86	7	2	9	2	19	21	
小計	810	235 (90)	611 (8)	846 (98)	404 (28)	442 (70)	90 (32)	1,065	42	17	59	129	729	858	
*1 私立大學 (II)	O	100	(5)	48	53 (1)	32	21	—	79	1	—	1	—	—	—
	P	100	(4)	62	66	32	34	—	73	—	—	—	—	—	—
	Q	100	(4)	24	28 (3)	4	24	—	38	49	129	178	—	—	—
	R	80	(—)	50	50	20	30	—	97	—	—	—	—	—	—
	S	80	(1)	(1)	(2)	2	—	—	—	—	—	—	—	—	—
小計	460	14 (4)	185	199 (4)	90 (2)	109 (2)	—	287	50	128	179	—	—	—	
合計	2,090	377 (113)	1,071 (9)	1,448 (122)	720 (35)	728 (87)	137 (40)	2,093	122	195	317	174	958	1,182	

註) ( ) : 非醫師, \*1 : 1980년 현재 卒業生없는 大學임.

臨床醫學分野 敎員確保에 置重하고 있음은 大學運營上의 不可避한 結果라 理解되나 健全한 醫學敎育 發展을 위해 시정되어야 할 課題라고 본다.

(2) 醫學科 職級別 專任敎員 : 19個醫科大學 醫學科

專任敎員 1,448名의 職級別 構成을 보면 全體的으로는 敎授 및 副敎授(A“티오”)가 50% 助教敎授 및 專任講師(B“티오”)가 50%로 50:50의 같은 構成 比率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大學別로 보면 國立大學에 있어서는 基

表 3. 醫科大學 醫學科 教育分野別 專任教員 構成比(%)

醫科大學 (數)	分野	基礎醫學		臨床醫學		合 計	
		教員數	%	教員數	%	教員數	%
國立大學 (6)	數	128	34.0	275	25.7	403	27.8
	%	32.0		68.0		100.0	
私立大學 (13)	數	249	66.0	796	74.3	1,045	72.2
	%	24.0		76.0		100.0	
合 計 (19)	數	377	100.0	1,071	100.0	1,448	100
	%	26.0		74.0		100.0	

礎分野에서는 62:38, 臨床分野에서는 53:47, 全體에 있어서는 56:44로 A“티오”인 教授 및 副教授 數가 B“티오”인 助教授 및 專任講師數보다도 많음에 반하여 私立大學에 있어서는 基礎分野에서는 56:44로 A“티오”數가 B“티오”數보다 많으나 臨床에 있어서는 44:56으로 B“티오”數가 많고 全體的으로도 47:53으로 B“티오”數가 많았다(表 2 및 表 4). 이러한 比率 構成을 大學設置基準令의 “티오” A:B 構成비인 4:5와 비교하여 보면 私立大學의 臨床分野 教員 構成비를 제외하고는 全體的으로 逆構成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傾向은 國立大學이 私立大學보다 현저하였다.

이러한 現象은 國立大學에 있어서의 教員“티오”數의

表 4. 醫科大學 醫學科教員 分野別 職級別 構成比(%)

醫科大學 (醫學科)	分野	國立大學(6)			私立大學(13)			合 計(19)		
		教授 副教授	助教授 講 師	小 計	教授 副教授	助教授 講 師	小 計	教授 副教授	助教授 講 師	總 計
		(A)	(B)		(A)	(B)		(A)	(B)	
基礎醫學	數	79	49	128	140	109	249	219	158	377
	%	62.0	38.0	100.0	56.0	44.0	100.0	58.0	42.0	100.0
臨床醫學	數	147	128	275	354	442	796	501	570	1,071
	%	53.0	47.0	100.0	44.0	56.0	100.0	47.0	53.0	100.0
合 計	數	226	177	403	494	551	1,045	720	728	1,448
	%	56.0	44.0	100.0	47.0	53.0	100.0	50.0	50.0	100.0

硬直性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도 주어진 “티오” 조차 教員確保가 어려운 實情임이 보다 基本的인 原因이 되고 있다 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資料로는 62:38인 國立基礎醫學分野의 構成비를 例로서 들 수 있겠다. 또 하나의 原因은 數의으로 限定되어 있는 基礎各科 教員들이 新設 醫科大學으로 轉出될 때 主로 B“티오” 教員이 移動할 可能性이 크며 그 後任이 補充되지 못하는데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現象은 私立大學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다만 臨床分野에 있어서 이런 現象이 덜 深刻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臨床分野 教員 人力源으로 一般 綜合病院에 있어서의 臨床科目 專攻醫 修鍊者를 活用할 수 있다는 差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臨床專門醫 修鍊過程의 目的은 臨床專門醫師의 養成에 있지 않고 醫科大學 臨床分野 教員을 育成하기 위한 過程이 아님을 생각할 때 醫科大學 教員을 育成하는 對策은 비단 基礎分野뿐만 아니라 臨床分野에 있어서도 講究

되어야 할 重要課題라 할 수 있다. 過去에 專門醫 試驗에 합격한 醫師가 開業에 앞서 綜合病院 勤務를 통한 經驗을 習得하여 開業에 臨하는 傾向을 보였듯이 오늘날 醫科大學 臨床分野 教授職을 한갓 開業에 앞선 經驗을 習得하는 곳으로 그릇 생각하고 있는 教員들이 많이 있다 한다면 이를 잘못된 判斷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지 열려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3) 醫科大學 教科目別 專任教員: 1980年 現在 卒業生을 輩出하고 있는 14個 醫科大學의 大多數가 教室單位의 學科目으로 醫學科 教課過程에 開設하고 있는 學科目에는 基礎分野에 있어서는 ① 解剖組織學, ② 生理學, ③ 生化學, ④ 病理學, ⑤ 藥理學, ⑥ 微生物學, ⑦ 寄生蟲學 및 ⑧ 豫防醫學 등 8個科目이었고 大學에 따라서 醫史學, 法醫學 등을 教室級單位로 開設하고 있었다. 한편 臨床分野에 있어서는 ① 內科學, ② 外科學, ③ 小兒科學, ④ 產婦人科學, ⑤ 神經精神科學, ⑥ 眼科學, ⑦ 耳鼻咽喉科學, ⑧ 皮膚科學, ⑨ 泌尿器

表 5. 醫科大學 醫學科 開設學科目別 教員 및 助教現況

醫科大學 學科目	總 計(19)			國 立 大 學(6)			私 立 大 學(13)			助 教 (基礎)
	合 計	教 授 副教長	助教授 專任講師	小 計	教 授 副教授	助教授 專任講師	小計	教 授 副教授	助教授 專任講師	
解剖組織學	55(26)	29 (6)	26(20)	19 (5)	9	10 (5)	36(21)	20 (6)	16(15)	14 (3)
生 理 學	51(16)	28 (5)	23(11)	20 (3)	12 (1)	8 (2)	31(13)	16 (4)	15 (9)	15 (6)
生 化 學	41(18)	22 (4)	19(14)	16 (3)	10 (1)	6 (2)	25(15)	12 (3)	13(12)	15 (9)
病 理 學	52 (7)	28	24 (7)	17	11	6	35 (7)	17	18 (7)	16 (1)
藥 理 學	36(10)	23 (4)	13 (6)	11	8	3	25(10)	15 (4)	10 (6)	18 (6)
微 生 物 學	48(16)	25 (4)	23(12)	20 (4)	11 (1)	9 (3)	28(12)	14 (3)	14 (9)	19 (5)
寄 生 虫 學	17 (3)	10 (1)	7 (2)	5 (1)	3 (1)	2	12 (2)	7	5 (2)	9 (3)
豫 防 醫 學	70(14)	49 (9)	21 (5)	19 (3)	14 (1)	5 (2)	51(11)	35 (8)	16 (3)	27 (4)
其 他	7 (3)	5 (2)	2 (1)	1	1	—	6 (3)	4 (2)	2 (1)	4 (3)
小 計	377 (113)	219(35)	158(78)	128(19)	79 (5)	49(14)	249(94)	140(30)	109(64)	137(40)
內 科 學	186	88	98	53	29	24	133	59	74	—
外 科 學	119	53	66	26	12	14	93	41	52	—
小 兒 科 學	89	40	49	20	12	8	69	28	41	—
產 婦 科 學	92	38	54	21	9	12	71	29	42	—
神 經 精 神 科 學	54	23	31	16	10	6	38	13	25	—
眼 科 學	40	23	17	11	6	5	29	17	12	—
耳 鼻 咽 喉 科 學	54	32	22	14	9	5	40	23	17	—
皮 膚 科 學	39	18	21	12	6	6	27	12	15	—
泌 尿 器 科 學	42	19	23	14	6	8	28	13	15	—
整 形 外 科 學	84	37	47	19	11	8	65	26	39	—
神 經 外 科 學	60	25	35	13	5	8	47	20	27	—
胸 廓 外 科 學	30	14	16	11	5	6	19	9	10	—
成 形 外 科 學	13	8	5	3	2	1	10	6	4	—
放 射 線 科 學	64	28	36	17	9	8	47	19	28	—
麻 醉 科 學	54	28	26	15	8	7	39	20	19	—
臨 床 病 理 科 學	27	16	11	6	6	—	21	10	11	—
其 他	24	12	12	4	3	1	20	9	11	—
小 計	1,071(9)	502	569 (9)	275 (1)	147	128 (1)	796 (8)	354	442 (8)	—
合 計	1,448 (122)	720(35)	728(87)	403(20)	226 (5)	177(15)	1,045 (102)	495(30)	550(72)	137(40)

註) ( ) : 非醫師數

科學, ⑩ 放射線科學, ⑪ 麻醉科學, ⑫ 臨床病理科學 등 醫師國家試驗科目의 예도 ⑬ 整形外科學, ⑭ 神經外科學, ⑮ 胸廓外科學 및 ⑯ 成形外科學 등을 教室單位學科目으로 開設하고 있었고 大學에 따라서는 齒科學, 再活醫學, 核醫學, 遺傳學 등을 教室級單位로 開設하고 있었다(表 5). 그러나 大學마다 醫學科 教課過程에 開設하고 있는 教科目과 그 數는 各已 多様하였고 大學에 따라 30個 學科目에서부터 43個 學科目에 이르기 까지 差異가 있었으며 總學科目에 配定하는 學點數도 大學에 따라 153.0學點부터 229.0學點에 이르고 差異

가 컸다<sup>9)</sup>. 이러한 開設學科目의 數는 各大學의 特性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겠으나 바람직학 醫學教育의 定着과 發展을 위해서는 醫學科 教課過程에서 開設하는 學科目에 對한 教育學的인 檢討와 制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開設한 學科目을 教育하는데 있어서는 大學設置基準令에 依據한 學科目으로서 發展할 수 있도록 醫科大學의 制度的 支援策도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教室單位級 學科目으로 開設되고 있는 各 學科目의 專任教員의 全體數 現況을

보면 學科目에 따라 敎員數에 큰 差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差異는 같은 基礎分野科目에 있어서도 學生定員數 教育時間數에 따라 敎員定員數에 差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臨床分野科目에 있어서는 이러한 與件이외에도 附屬病院의 病床數에 따른 人力配定의 差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學生數를 고려하여 開設科目當 最少敎員數 3名 以上을 基準하여 볼 때 우리나라 醫科大學 醫學科에서 開設하고 있는 學科目中 많은 學科目이 深刻한 專任教員數絕對不足現象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基礎醫學分野 및 臨床醫學分野 學科目中 60名 以上の 專攻敎員數를 가지지 못하는 學科目은 學科目당 敎員 絕對不足 學科目으로 分類하고 그 對策을 講究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基準을 적용하여 볼 때 基礎科目에 있어서는 生化學, 藥理學, 微生物學, 그리고 寄生蟲學 臨床科目에 있어서는 眼科學, 皮膚科學, 泌尿器科學, 臨床病理科學 등에 대한 敎員要員 確保는 時急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及한 바와 같이 多幸히 臨床分野 學科目에 있어서는 醫科大學 經營의 財政的 問題만 해결된다면 專門醫資格者라는 人力資源은 있기 때문에 解決策은 있다 하겠으나 基礎分野에 있어서는 國家的 次元의 對策없이 그 解決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判斷된다. 現在로서 基礎分野 敎員 人力源은 大學院過程에서 基礎

醫學 科目を 專攻하면서 基礎學敎室의 助教로 勤務하는 醫學徒라 할 수 있을 것이나 現在 우리나라 醫學教育制度는 醫科大學 卒業後 臨床分野보다 基礎分野를 專攻하는 醫學徒에게 不利하게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臨床醫學分野를 擇할 경우에는 專門醫修練을 이수하면서 大學院過程에서 學位을 위하여 基礎分野科目이든 臨床分野科目이든 專攻을 選擇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大學院 및 專門醫修練을 마친 다음 醫科大學 敎員으로 勤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臨床專門醫로서 專攻을 繼續할 수 있고 또 臨床敎員으로 勤務하다가도 언제든지 本人의 決心에 따라 그 進路를 變更選擇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醫科大學 卒業後 基礎醫學分野를 擇할 경우에는 오로지 大學院過程에서는 基礎分野科目만을 擇하여야 하고 學位過程을 修了하였다 하더라도 大學敎員으로 採用된다는 保障도 있을 수 없다. 多幸히 基礎科目 敎員으로 採用되었다 하더라도 醫學者의 使命이라 할 수 있는 教育與件이나 研究與件이 不備하며 報酬面에 있어서도 臨床을 擇한 同級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進路變更은 또다시 새로운 修練을 前提로만 可能등 많은 制約과 不利한 點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醫科大學 基礎分野 敎員育成 및 確保는 醫科大學 責任者는 勿論 政府當局의 政策的인 對策없이는 解決될 수 없는 源泉的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6. 韓國과 日本 醫科大學 醫學科敎員 現況

國名	韓 國(1979)							日 本(1970)		
	集 計 大學數	平均敎員數			敎員 1人當學生數			集 計 大學數	平均 敎員數	敎員 1人 當學生數
		基 礎	臨 床	計	基 礎	臨 床	計			
國立大學	6	21.4	45.8	67.2	12.8	6.0	8.1	25	97.1	3.9
私立大學	8	29.4	76.4	105.8	6.9	2.7	3.8	18	117.2	3.4
公立大學	—	—	—	—	—	—	—	9	90.5	3.0
合 計	14	25.9	63.3	89.2	9.0	3.7	5.2	52	102.9	3.7

(4) 醫學科 專任教員當 學生數 : 19個 醫科大學 中 卒業生을 輩出한 14個 醫科大學의 平均 專任教員數는 國立大學이 67.2名, 私立大學이 105.8名, 全體는 89.2名 이었다. 한편 敎員 1人的 學生數는 國立大學에 있어서는 敎員 1人當 學生 8.1名, 私立大學에 있어서는 3.8名, 全體에 있어서는 5.2名, 이었다(表 2 및 表 6). 이를 日本의 敎員現況(1970年)과 比較하여 보면 우리나라 醫科大學 平均 敎員數는 89.2名임에 비하여 日本은 102.9名으로 현저한 不足함이 있었고 敎員 1人當 學生

數에 있어서도 日本의 3.7名에 비하여 5.2名으로 높은 對比를 보이고 있었다.

### 3. 醫科大學 醫學科 非專任教員

(1) 時間講師 現況 : 醫學科 學生 教育에 있어서 不足되는 專任教員의 人力을 補充하기 위한 時間講師制를 적용하고 있는 大學은 19個大學中 16個大學으로 時間講師數는 317名이었다. 分野別로는 基礎醫學 科目에 122名, 臨床醫學科目에 195名이 活用되고 있었으며 大

學別로는 國立大學이 79名, 私立大學(Ⅰ)이 59名, 私立大學(Ⅱ)가 179名이었다. 現實의으로 學科目에 따라서는 專攻하는 敎員의 絶對數가 不足하기 때문에 時間講師 活用方案은 모든 醫科大學에서도 研究檢討되어야 할 것이나, 文教當局에 있어서도 稅財的 觀點에서 對策을 講究하는 등 보다 積極的인 時間講師制 活을 위한 支援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設置基準에 있어서도 時間講師 3名을 專任敎員數 1/3範圍에서 專任敎員 1人과 代置 可能토록 規制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醫學科 專任敎員 1,448名은 時間講師로서 他大學을 支援할 때 483名 以上の 追加者인 專任敎員 人力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推算된다. 特히 新設大學에 있어서의 基礎分野 敎員의 確保難 解決 方案으로 時間講師制의 活에 관한 研究는 外來敎授制와 併行하여 적극적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表 2).

(2) 外來敎授 現況 : 14個 醫科大學에서 임명하고 있는 外來敎授의 數는 基礎分野科目에서 174名, 臨床分野科目에서 958名으로 全體의으로는 1,132名에 달하고 있으며 이 敎는 該當大學의 專任敎員數인 1,249名과 거의 對等한 數라 할 수 있다(表 2). 大學에 따라 外來敎授의 任用規準과 活用方途는 다르다 할 수 있을 것이나 外來敎授가 지니는 本然의 機能을 活用한다면 大學內의 學生敎育뿐만 아니라 大學外部 施設을 活用하는 바람직한 敎育過程 發展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大學病院의 施設不足을 補完하고 地域社會에 나아가 臨床現地實習의 機會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敎育의 發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特히 專任敎員을 確保하기 어려운 與件에 있는 醫科大學에 있어서는 時間講師制와 併行하여 積極的인 發展研究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 4. 醫學科 助敎와 附屬病附 專攻醫

(1) 醫學科 助敎 : 19個 醫科大學中 14個大學에 助敎가 있었으며 醫學科助敎 總數는 137名이었으며 그중 40名은 非醫學科 出身이었다. 大學別 助敎數는 大學에 따라 0~43명이었고 10名 이상의 助敎가 있는 大學은 4個大學이었다(表 2). 各醫科大學의 助敎들이 專攻하고 있는 學科目은 모두 基礎分野 學科目이었고 科目에 따라서 助敎數는 4名~27名까지 差가 있었으며 全體의으로는 1名의 助敎도 없는 學科目(敎室)도 많았다(表 5).

大學設置基準에서 規程하고 있는 助敎의 數는 專任하는 敎授 및 副敎授 1人當 1名 以上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19個 醫科大學의 基礎醫學分野 敎室單位 學科

目 延總數는 152個(19大學×8個科目)이며 敎授 및 副敎授數는 219名임에 비하여 助敎의 總數는 137名임으로 基準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學生敎育에 있어서 敎授의 補助不足에 대한 補完은 물론 장차의 基礎醫學分野 敎員人力 養成을 위해서도 助敎制度 改善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各 醫科大學의 臨床醫學分野 學科目(敎室)에 助敎를 임명하고 있는 大學은 하나도 없었다(表 5).

(2) 醫學科 臨床醫學科目 專攻醫師 : 18個 醫科大學 附屬病院에서 開設하고 있는 診療科에서 專門醫師가 되고자 修鍊받고 있는 專攻醫師(Resident) 總數는 2,093名이었다(表 2). 專攻醫師는 비록 大學附屬病院에서 勤務하면서 修鍊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現行 敎育法關係 規程上이나 醫科大學 人事規程에 의하면 醫科大學 學生敎育에 있어서의 敎員의 補助 任務를 부여할 근거가 없는 專攻醫師들이다. 그러나 醫科大學 臨床分野 學科目을 담당하는 敎員들은 講議에 있어서는 勿論 臨床實習敎育에 있어서도 補助받을 助敎를 配定받지 못한채 敎育에 臨하고 있어 認定되지 않은 助敎 役割을 專攻醫師에게 賦與하고 學生 臨床敎育에 參與시키고 있는 結果를 가져오고 있다.

앞서 醫學科 助敎에 관하여 言及한 바와 같이 大學設置基準에 의거하여 臨床醫學分野 科目에도 담당 敎授들의 敎育機能을 合當하게 遂行하게 하기 위해서는 醫科大學은 制度的으로 專攻醫師중 必要한 人力을 臨床助敎로 任命하거나 다른 敎員補助 人力을 確保할 必要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醫科大學 醫學科 敎育過程과 臨床專門醫 修鍊過程의 混同을 피할 수 있고 醫學科 敎育의 本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醫科大學 醫學科 學生臨床實習病院

醫科大學이 醫學科 學生 臨床實習을 위하여 開設한 附屬病院의 病床數 規模는 大學에 따라 200病床~1787病床까지 큰 差가 있었으며, 入學定員學生數를 기준한 學生 1人當 平均 病床數에 있어서 5病床以上을 확보하고 있는 大學은 19個大學中 9個大學이었고 3病床 以下인 大學은 6個大學이었다. 全體의으로 學生 1人當 平均 病床數는 5.0(病床)이었다.

한편 大學附屬病院 이외의 病院施設을 學生 臨床實習 目的으로 活用하고 있는 大學은 新設된 醫科大學을 除外한 14個大學中 10個大學이었다(表 7-1).

一般的으로 우리나라 醫科大學 學附屬病院은 醫學科 學生에 대한 臨床實習과 專門醫修鍊의 權能을 가지고 있는 한편 病院으로서의 診療機能을 併行 遂行한다.

表 7-1. 醫科大學 醫學科學生 臨床實習 病院施設

醫科大學 (醫學科)	區分	入學定員	附屬病院	學生當	外部病院
		學生數	病床數	病床數	活用
國立大學	A	160	1,068	6.8	+
	B	140	400	2.9	+
	C	140	295	2.1	+
	D	140	486	3.5	+
	E	120	286	2.4	+
	F	120	250	2.1	-
	小計	820	2,825	3.4	5/6
私立大學(I)	G	140	200	1.4	+
	H	120	962	8.0	+
	I	120	700	5.8	-
	J	100	390	3.9	+
	K	100	1,787	17.9	+
	L	90	260	2.9	+
	M	80	700	8.8	-
	N	60	300	5.0	-
小計	810	5,299	6.5	5/8	
私立大學(II)	O	100	500	5.0	.
	P	100	670	6.7	.
	Q	100	270	2.7	.
	R	80	560	7.0	.
	S	80	-	-	.
小計	460	2,000	-	.	
合計	2,090	10,124	5.0	10/14	

따라서 醫科學 臨床醫學 學科目 담당 敎員의 定員은 大學設置基準令에 다른 나라<sup>\*)</sup>에서와 같이 病院의 病床數와 外來診療患者數를 反映하여 基準으로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表 7-2). 오늘날 大學附屬病院은 그

表 7-2. 韓國·日本·美國 醫科大學 敎員 및 助教定員數

國名	區分	基準	基礎		臨床		合計	
			敎員數	助教數	敎員數	助教數	敎員數	助教數
*1 韓國		學生: 100名 病床: 기준 없음	29	14	52	22	81	36
日本 (國立大學)		學生: 100名 病床: 600~800	20~40	25~45	65~615	90~280	90~655	110~325
*2 美國		學生: 100名 病床: 800~1,000	70~100	90~120	200~500	200~400	270~600	290~520

\*1. 24個學科 開設을 基準한 最低限數(推定值)

\*2. 外來臨床敎授 및 專攻醫包含

地域社會의 醫療施設의 中軸役割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施設의 水準은 大端히 높아지고 있으며 醫療傳達體系에 있어서 3次的 醫療를 遂行하는데 合當한 位置에 있다. 따라서 專門醫修鍊病院으로서의 病院施設化되어지는 傾向이 있어 醫學科 學生臨床 實習場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기에는 合當치 못한 分野가 發見되고 있으며 大學에 따라서는 이러한 分野를 補充할 目的으로 大學病院 外의 病院施設을 醫學科 學生實習場으로 活用하는 教育計劃을 發展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正常的인 醫學科 教育過程 運營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言及한 바 있는 外來敎授制, 時間講師制와 併行하여 教育計劃을 發展시킨다면 그 教育的 效果는 倍加될 것으로 判斷된다.

### 大學設置基準令과 醫學科 敎員定員(推定)

#### 1. 大學設置基準令의 醫學科敎員配定에 있어서 適用되는 基準(抄)

教育法에 의거한 大學設置基準令<sup>\*)</sup>(대통령령 제4543호)중 醫科大學 醫學科 敎員 配定에 있어서 適用되는 基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醫學科(醫科大學)基本要員: 9名
- (2) 160名 定員을 초과하는 每 10名 學生當 追加敎員: 1名
- (3) 開設敎科目當 擔當敎員數: 2名以上
- (4) 敎授 및 副敎授 每 1人當 助教數: 1名以上
- (5) 敎授 및 副敎授對助教敎授 및 講師人員比: 4:5
- (6) 專任敎員 1/3範圍에서 時間講師 3名을 專任敎員 1名과 代置可能

#### 2. 醫科大學 醫學科 專任 敎員과 助教 定員數(最低限)



表 8. 醫科大學 醫學科 專任教員定員 및 助教定員(推定)

入學定員數	區分		專任教員定員數(最低限)			助教定員數(最低限)		
	分野別		計	職級別		基礎分野	臨床分野	計
	基礎 (8個科目)	臨床 (16個科目)		教授 및 副教授	助教授 및 專講			
60	23	42	65	29	36	12	17	29
80	26	47	73	33	40	13	20	33
90	28	49	77	34	43	14	20	34
100	29	52	81	36	45	14	22	36
120	32	57	89	40	49	16	24	40
140	35	62	97	43	54	17	26	43
160	38	67	105	47	58	19	28	47
180	41	72	113	50	63	20	30	50
200	44	77	121	54	67	22	32	54
對 比	3.6	6.4	—	4.0	5.0	4.0	6.0	—

註) 定員算出 基準 : 대학설치 기준령(대통령령 제4543호)

大學設置基準令의 敎員配定基準를 적용하여 開設學科科目을 24個科目으로 假定한 入學定員學生數別 醫學科(醫學大學)의 專任教員과 助敎의 (最低限)定員數는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入學定員 60名인 大學에 있어서는 65名 以上の 專任教員과 29名 以上の 助敎를 配定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入學定員 100名인 大學에 있어서는 81名 以上の 專任教員과 36名 以上の 助敎를, 160名의 入學定員을 가진 大學에서는 105名 以上の 專任教員과 47名 以上の 助敎를 配定하도록 規程하고 있다. 한편 職級別 敎員構成比와 開設學科科目數에 따른 基礎醫學分野(8個科目基準) 및 臨床醫學分野(16個科目基準)의 敎員 및 助敎配定數는 表 8과 같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各 醫科大學 敎課過程에서 開設하고 있는 學科科目數는 大學에 따라 各己 多樣하여 30~43個 學科科目에 이르고 있어 醫學科 敎科科目에 대한 醫科大學間의 敎育制度的 調整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表 9). 現在 醫科大學 醫學科에서 開設하고 있는 學科科目中에는 專門醫修鍊科目과 大學院過程에서 開設하는 學科科目과 醫科大學 醫學科 過程에서 開設되어야 할 學科科目 등을 公約數的으로 開設運營되고 있는 實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部分的으로는 醫學과 醫療가 지니는 學問의 特殊性 때문에 야기된 結果라고 볼 수 있겠으나 바람직한 大學敎育의 發展을 위해서는 반드시 制度的인 研究檢討와 整理가 이루어져야 할 우리나라 醫學敎育의 課題라고 생각한다.

3. 醫學科 基礎醫學科目 擔當敎員 定員과 現敎員數  
우리나라 醫科大學 醫學科에서 共通的으로 開設하고

表 9. 醫科大學 醫學科 敎課過程 開設學科科目

區分	醫學科 履修 點 (醫學科)	醫學科 開設 總學科科目數			醫學科 敎室單位 級學科科目數			
		基礎 分野	臨床 分野	計	基礎 分野	臨床 分野	計	
								基礎 分野
國 立 大 學	A	155.0	13	27	40	9	16	25
	B	178.0	13	24	37	8	17	25
	C	165.0	13	30	43	7	15	22
	D	186.0	13	29	42	7	15	22
	E	172.0	13	25	38	7	16	23
	F	160.0	11	20	31	8	14	22
	平均	169.0	13	26	38	8	16	24
私 立 大 學 ( <u>丁</u> )	G	178.0	10	20	30	7	15	22
	H	181.0	9	34	43	8	13	21
	I	224.5	10	21	31	7	17	24
	J	178.0	9	23	32	9	18	27
	K	183.5	11	29	40	8	16	24
	L	229.0	11	32	43	9	15	24
	M	177.0	13	21	34	8	16	24
	N	153.0	11	23	34	8	13	21
平均	175.0	11	25	36	8	16	24	
平 均	173.0	12	25	37	8	16	24	

있는 8個 學科科目인 解剖組織學, 生理學, 生化學, 病理學, 藥理學, 微生物學, 寄生蟲學 및 豫防醫學 專任 最低限 敎員定員數를 大學設置基準令 敎員配定基準를 적용하여 算定한 總數는 536名이 된다. 한편 위 8個學科

表 10. 醫科大學 醫學科 基本基礎醫學科目 最低限 教員定員(推定)과 現在教員數

區分	基礎科目	大學數	解剖組織學	生理學	生化學	病理學	藥理學	微生物學	寄生蟲學	豫防醫學	合計		
											數	對比	
教員定員數(推定)	國立大學	(6)	25	25	25	25	25	25	25	25	200	100.0	
	私立大學	I	(8)	27	27	27	27	27	27	27	27	216	(100.0)
		II	(5)	15	15	15	15	15	15	15	15	120	(100.0)
		小計	(13)	42	42	42	42	42	42	42	42	336	100.0
	合計	(19)	67	67	67	67	67	67	67	67	67	536	100.0
現在教員數	國立大學	(6)	19	20	16	17	11	20	5	19	127	63.5	
	私立大學	I	(8)	33	31	25	34	25	25	12	44	229	(106.0)
		II	(5)	3	—	—	1	—	3	—	7	14	(11.7)
		小計	(13)	36	31	25	35	25	28	12	51	243	72.0
	合計	(19)	55	51	41	52	36	48	17	70	370	69.0	

註) : 現在 教員數는 1979學年度統計임.

表 11. 醫科大學 醫學科 基本基礎科目別 教員不足數(推定)

醫科大學	基礎科目	入學定員學生數	教員基準數	解剖組織學	生理學	生化學	病理學	藥理學	微生物學	寄生蟲學	豫防醫學	合計
B	140	(4)	-1	+	-1	+	-2	-1	-2	+	-7	
C	140	(4)	-1	-2	-2	-2	-3	+	-4	-2	-16	
D	140	(4)	-1	-1	-1	-2	-1	-1	-4	-2	-13	
E	120	(4)	-2	-3	-2	-3	-3	-1	-4	-1	-19	
F	120	(4)	-2	-1	-2	-3	-4	-1	-3	-1	-17	
小計	820	—	-7	-7	-9	-10	-14	-5	-20	-6	-78	
私立大學(I)	G	140	(4)	-1	-3	+	+	-2	-2	-4	-2	-14
	H	120	(4)	+	+	+	+	+	+	+	+	+
	I	120	(4)	-1	-2	-2	-1	-2	-1	-4	-2	-15
	J	100	(3)	+	+	-1	-2	+	+	-1	+	-4
	K	100	(3)	+	+	+	+	+	+	-1	+	-1
	L	90	(3)	-1	-1	-1	-2	-1	-1	-2	-1	-10
	M <sub>2</sub>	80	(3)	+	+	-1	-1	+	-1	-2	+	-5
N	60	(3)	-1	-1	-1	-1	-1	-2	-2	+	-9	
小計	810	—	-4	-7	-6	-7	-6	-7	-16	-5	-58	
私立大學(II)	O	100	(3)	-1	-3	-3	-3	-3	-2	-3	-1	-19
	P	100	(3)	-3	-3	-3	-3	-3	-3	-3	+	-21
	Q	100	(3)	-2	-3	-3	-2	-3	-2	-3	-2	-20
	R	80	(3)	-3	-3	-3	-3	-3	-3	-3	-3	-24
	S	80	(3)	-3	-3	-3	-3	-3	-2	-3	-3	-23
小計	460	—	-12	-15	-15	-14	-15	-12	-15	-9	-107	
合計	2,090	—	-23	-29	-30	-31	-35	-24	-51	-20	-243	

註) : 各大學의 1979學年度 現在 教員數를 基準하여 算出함.

목을 敎育하고 있는 專任教員數는 現在 370名이었다. 各學科목을 담당 敎育하고 있는 敎員數가 配定基準과 같지 않고 大學에 따라서는 配定基準을 월등하게 초과한 敎員數를 確保하고 있는 大學도 있고 確保하지 못하고 있는 大學도 있어 正確한 充足率은 算出할 수 없으나 絕對數를 기준한 粗充足率은 國立大學이 63.5%, 私立大學(1)이 106.0%, 私立大學(2)가 11.7%이었으며 全體의으로는 69.0%이었다(表 10).

醫科大學 醫學科에서 開設하고 있는 基礎醫學分野 8個科목을 담당하고 있는 專任教員數의 大學設置基準에 의거한 配定基準數(最低限)에 未達된 不足數를 보면 全體의으로는 243名이며 이는 定員基準數 536名의 45.5%에 該當되는 數이다. 大學別 基礎醫學分野 不足敎員數는 國立大學에 있어서는 6個大學 合計가 78名, 私立大學(I)에 있어서는 8個大學 合計가 58名, 私立大學(II)에 있어서는 5個大學 合計가 107名의 不足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學科目別 不足敎員數는 解剖組織學 23名, 生理學 29名, 生化學 30名, 病理學 31名, 藥理學 35名, 微生物學 24名, 寄生蟲學 51名, 그리고 豫防醫學은 20名의 不足을 나타내고 있었다(表 11).

## 總 括

우리나라 19個醫科大學의 1979學年度 敎課過程表와 1980年度 入學學生 定員을 基礎的 資料로 삼아 우리나라 醫科大學 醫學科 專任教員, 非專任教員, 助教, 專攻醫, 臨床實習施設에 관한 現況을 分析하고 大學設置基準에 의거한 醫學科 專任教員 및 助教 定員數 推定과 不足敎員現況을 分析한 結果를 다음과 같이 要約한다.

1. 1980年 現在 19個醫科大學의 入學學生定員數는 2,090名이었다.
2. 醫科大學 醫學科 專任教員 全體數는 1,448名이었으며 그중 122名은 非醫學科 出身敎員이었다.
3. 醫學科敎員 1,448名중 基礎醫學分野 敎員數는 377名(26%)이었고 臨床醫學分野 敎員數는 1,071名(74%)이었다. 한편 國立大學에 있어서는 基礎對臨床敎員比는 32:68(%)이었고 私立大學에 있어서는 24:76(%)이었다.
4. 醫學科 敎員 1,448名의 職級別 對比는 全體의로는 50:50(%)으로 敎授 및 副敎授(A)와 助教授 및 專任講師(B)의 對比는 같았으나 國立大學에 있어서는 56:44, 私立大學에 있어서는 47:53으로 相反現象을 보이고 있었다.

5. 醫學科에서 一般的으로 開設하고 있는 學科目은 基礎醫學科目으로는 解剖組織學, 生理學, 生化學, 病理學, 藥理學, 微生物學, 寄生蟲學 및 豫防醫學 등 8個科目이었고, 臨床醫學科目으로는 內科學, 外科學, 小兒科學, 產婦人科學, 神經精神科學, 眼科學, 耳鼻咽喉科學, 皮膚科學, 泌尿器科學, 放射線科學, 麻醉科學 臨床病理科學 등 醫師國家試驗科目 이외에도 整形外科學, 神經外科學, 胸廓外科學 및 成形外科學 등 16個科目으로 都合 24個學科目이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大學에 따라 開設하는 學科目이 있어 그 數는 30~43個學科目에 이르고 있었으며 就得學點도 大學에 따라 153.0~229.0 學點을 要求하고 있어 그 差가 컸다.

6. 醫學科가 一般的으로 開設하고 있는 基本醫學科目중 專任教員數가 絕對需要에 크게 未達되고 있는 基礎分野 學科目은 生化學, 藥理學, 微生物學 및 寄生蟲學 등이었고 臨床分野 學科는 眼科學, 皮膚科學, 泌尿器科學 및 臨床病理科學 등이었다.

7. 1980年 現在 卒業生을 배출한 14個醫科大學의 平均 專任教員數는 89.2名이었고 6個國立大學平均은 67.2名, 8個私立大學 平均은 105.8名이었다.

8. 醫學科 專任教員 1人當 學生數는 全體의으로는 5.2名이었고 國立大學에서는 8.1名, 私立大學에서는 3.8名이었다.

9. 19個醫科大學中 16個大學이 時間講師制를 택하고 있었으며 時間講師 總數는 317名이었다.

10. 19個醫科大學中 14個大學이 外來敎授制를 택하고 있었으며 外來敎授 總數는 1,132名이었다.

11. 19個醫科大學中 14個大學에 助教가 있었으며 그 總數는 137名이었으며 그중 40名이 非醫學科 出身이었다.

12. 19個醫科大學中 18個大學의 附屬病院各科에서 修鍊하고 있는 專攻醫師數는 2,093名이었다.

13. 醫學科 學生 臨床實習을 위한 附屬病院의 病床數는 大學에 따라 200~1,787病床이었으며 全體의인 學生 1人當 平均病床數는 5.0이었다.

14. 1980年 現在 卒業生을 輩出한 14個醫科大學中 10個大學은 醫學科 學生 臨床實習을 위해 附屬病院 以外の 病院을 活用하고 있었다.

15. 大學設置基準에 의거하여 敎員數를 推定하던 入學定員이 100名이고, 24個學科목을 開設하고 있는 醫科大學 醫學科의 專任 敎員定員數는 81名 以上, 助教數는 36名 以上으로 算定되었다.

16. 우리나라 醫科大學 醫學科에서 共通적으로 開設하고 있는 8個 學科目에 대한 19個醫科大學의 總需要 定員 敎員推定數는 536名이었다.

17. 우리나라 19個醫科大學에서 勤務하고 있는 基礎醫學分野 共通 8個科目 담당 敎員數는 370名이었으며 이는 總需要推定最低限定員 536名에 대하여 69.0%에 該當되는 數이었다.

18. 우리나라 19個醫科大學에서 開設하고 있는 基礎分野 共通 8個科目 專任敎員實際不足數는 243名이었으며 이는 總需要推定最低限定員 536名에 대하여 45.5%에 該當되는 數이었다.

### 建 議

1. 醫科大學 新設은 私立醫科大學을 止揚하고 公立醫科大學 또는 國立醫科大學 新設에 置重한다.

2. 大學設置基準令(大統領令 第4543號)中 醫科大學敎育과 關聯있는 條項을 醫學敎育 實情에 符合할 수 있도록 學科目數, 附屬病院 施設中 病床數 등을 敎員配定基準에 反映토록 改正補完한다.

3. 醫科大學 基礎醫學分野 敎育能力을 強化하기 위한 制度的 支援策을 講究한다.

4. 醫科大學, 文敎部 및 保健社會部가 추천하는 專門家로 構成하는 研究팀을 조직하여 醫科大學敎育과 醫學敎育 改革方案을 樹立하게 하고 이를 政策에 反映한다.

### —References—

- 1) 朴亨鍾：第4次 5個年 經濟發展計劃과 醫療制度, 大韓醫學協會誌, 20: 91~93, 1977.
- 2) 大韓醫學協會調查研究室：醫科大學數의 適正性檢討, 大韓醫學協會誌, 22: 1~9(附錄), 1979.
- 3) T. A. Hall & A. Mejia: Health Manpower Planning, WHO, 1978.
- 4) The Economics of Health & Medical Care,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64.
- 5) 韓國醫學敎育協會：醫科大學敎育現況(1978~1979) 癸丑文化社, 서울, 1979.
- 6) 大學設置基準令：大統領令 第4543號(1970.1.27 改正)
- 7) 崔三燮：醫科大學 敎育要員 現況, 韓國醫學敎育協會, 1979.
- 8)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HO, 1973.
- 9) 朝倉新太郎：醫科大學急増과 醫育制度, 醫學敎育, 2: 93~97, 1973.